## 새로 나온 책

▶사랑 후에 오는 것들(공지영·츠지 히토나리 지음, 김훈아 옮김)=쿠팡플레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원작 소설. 벚꽃 잎이 흩날리던 공원 호숫가 옆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남녀가 만난다. 7년 후, 김포공항에서 출판사 직원과 작가로 우연히 재회한다. 헤어진 지 칠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서로를 잊지 못했다. 찾아올 새봄을 맞이할 두 남녀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이야기. 소담출판사. 3만4000원.



▶최씨네 종말 탈출기(김은정 지음)=지구 종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종의 지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최씨네 가족. 각자 아픈 사연과 설움을 가지고 해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긴다. 소설에서 '종말'은 지구 종말과 가족 해체의 중의적 의미를 담았으며, 여덟 살 주인공의 이름은 '한라'로, 한라산에서 차용했다. 북레시피. 1만8000원.



▶슬기로운 육아 처방전(정성관·백정현 지음)=국내 최고의 소아 전문병원 의료진이 알려주는 우리 아이 발달·질병·심리 처방전. 소아청소년 진료의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 진료실에서 500만명의 아이들을 만나며, 부모들의 공통 질문을 고르고 골라 책 속에 담았다. 최신 의학 논문과 연구 정보를 토대로 아이를 키우며 반드시 알아야 할 질병 정보, 발달 과정, 심리 문제까지 빠짐없이 수록했다. 비타북스. 2만원.



▶노란 버스(로렌 롱 지음·윤지원 옮김)=시간이 흐르면서 변해 가는 노란 버스의 일생을 담은 책.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태우던 스쿨버스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노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로 바뀌고, 결국 도시 변두리에 버려진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란 버스는 집 없는 노숙자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 한다. 지양어린이. 1만7500원.



▶음표에 걸린 세계사(이광희 지음·박우희 그림)=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까지,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세계사를 바꾼 전쟁과 혁명의 이야기를 다룬 책. 클래식 음악의 창작 배경을 세계사라는 큰 흐름 속에 설명하면서도 다채로운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수록했다. 교과서에서만 만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다뤄 청소년들에게 세계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푸른숲주니어. 1만6800원. 강다혜기자



이 책!

소노 아야코의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 늙음을 경계하는 지혜, 나이 듦에 대한 깊은 통찰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책읽는고양이 펴냄)는 일본의 작가 소노 아야코가 나이 듦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낸 책이다. 시부모와 친정 어머니, 세 명의 노인과 생활하며 저자가 평소 기록해온 늙음을 경계하는 글이 엮였다. 원서명은 '계로록(戒老錄)'으로, 1972년 일본에서 처음 출간됐다. 저자의 나이 마흔에 출판된 이후 51세와 65세 때 수정·가필돼 출간되며 꾸준히 독자와 만나왔다. 그래서 책엔 세 개의 서문과 세 개의 후기가 담겼다.

2004년 국내에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는데, 발간 20주년을 맞아 최근 리커버판으로 다시 출간됐다. 그 사이 독자층의 세대교체를 고려해 문장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보다 경쾌하고 밀도 있게 다듬어졌다.

책은 고독감과 자괴감에 빠져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타인과의 어우러짐 속에서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음을 말해주며, 이를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출판사는 책에 대해 "늙음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좀 더 구체적인 노화 방지책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쉽게 만나기 힘든 조언자와 같은 책으로, 나이 듦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소개했다.

크게 3부로 구성된 책은 노화에 대한 자각 포인트와 늙음을 경계하는 지혜를 짚어준다.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늙음을 자각할 것',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인사치레는 포기할 것', '교제 범위나 매너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말 것', '칭찬하는 말조차도 주의할 것' 등에서부터 소소하게 '짐을 들고 다니지 말 것',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건을 줄여나갈 것', '저녁에는 일찌감치 불을 켤 것' 등등이다.

1부 '엄중한 자기 구제'에서는 풍부한 경험으로 무르익어야 할 노인의 내면이 오히려 뻔뻔스럽게 되는 원인을 '어른다움과 자립의 상실'이라는 마음 태세의 문제로 접근하고, 2부 '생의 한가운데에서'에서는 일상에서 늘 겪는 소소한 상황들 속에서 반짝반짝 생기를 더해줄 사례를 보여준다. 마지막 3부 '죽음을 편안하고 친숙하게'에서는 젊음과 마찬가지로 늙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어떻게 하면 죽음을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전한다. 오경순 옮김. 1만88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남아 있는 시간은 적지만 저마다의 인생길은 다 있으므로 천천히 게으름피우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족한 것이다."

– 본문 중 –

## 해모수의 발자취·김지하의 시 세계 탐구

### '나는 해모수다'·'나는 김지하다'

'한국 인물 500'을 기획해 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삶을 순차적으로 펴내고 있는 일송북이 최근 5차분으로 '나는 해모수다'와 '나는 김지하다'를 출간했다. 시리즈의 제목은 '나는 누구다'로 통일했고, '누구'에는 한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다.

'나는 해모수다'는 고구려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윤명철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각종 문헌과 고증을 거치면서 신화 속의 해모수를, 역사의 바탕이 분명한 해모수로 끄집어냈다.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됐다. 출판사는 "해모수는 북부여의 시조이자 고구려 개국의 바탕 창업자로서 그 존재의 의미와 역할이 분명함을 이 책의 서두에 나타내고 있다"며 "해모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자료를 소개하고 역사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속살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해모수의 성장 과정과 생활도 하나씩 복원시켜 나간다"고 소개했다.



'나는 김지하다'는 문학 담당 기자 출신인 이경철 문학평론가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실감으로 김지하 생애와 시와 사상을 총체적으로 살피며 엮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2장에서는 전라도 사투리와 비장한 서정,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민족·민중 서정시 등 김지하의 시 세계를 다룬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나, 지하가 말한다'를 주제로 김지하가 독자들에게 띄우는 편지글을 만들었다. 각 권 1만4800원. 오은지기자

## 제주의 이야기와 따스한 감성 가득

### 윤복희 첫 동화집 '샛바람과 파도 소리'

70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로 등단한 윤복희 작가가 첫 동화집 '샛바람과 파도 소리'를 펴냈다. 책엔 등단작들을 포함해 일곱 편의 단편동화가 엮였다.

표제작인 '샛바람과 파도 소리'는 아픈 손자에게 기꺼이 골수를 내어주어 생명을 선물해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다. 예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걷던 대나무숲의 샛바람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파도 소리를 듣는다.

이 외에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돌아온 바다', 4·3을 소재로 한 '동백을 보며 기다릴 거야' 등 제주의 이야기를 차분한 감성으로 그려낸 작품도 포함됐다. '앞으로 앞으로'는 온 세계 어린이를 다 만난다는 노랫말처럼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과 상상의 만남을 펼치고, '마술 피자'는 마법이라는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을 돌려주세요', 어린 오리 아름이와의 만남과 이별을 천진난만하게 그린 '보름아, 안녕!'도 어린이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출판사는 "작가는 흥미 위주의 소재보다는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이야기에 주목한다"며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도 작가 특유의 서정적이고 따뜻한 문체로 어루만져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른들도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즐길 수 있는 책이다. 한그루. 1만2000원. 오은지기자


수 축 상
CONGRATULATIONS
대한민국 산악 대상



강 태 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BYN블랙야크그룹회장)
(공익사단법인)고상돈기념사업회 지도의원

2024년 산악의 날 기념식에서
**제23회 대한민국 산악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익사단법인) 고상돈기념사업회
회 장 **고 관 용** 외 **회원 일동**

취 축 득
CONGRATULATIONS
지질학 박사학위



김 만 재
조부 : **김인권** · 조모 : (故)**고순희**
부 : **김진혁**(흥산초 27회) · 모 : **오미숙**

**지질학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표선면 토산2리 광산김씨 원복공파 종친회**

취 축 득
CONGRATULATIONS
제주대학교 경영학박사



박 철 수
(정자공 15세손)

**제주대학교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을
마음모아 축하드리며. 더없는 덕망과
지혜가 항상하시길 일심정성 기원합니다.

**선 흘 형 제 일 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 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D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 · 구독 750-2315 · 서귀지사 732-5552